

■ 주요 뉴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준 신뢰 유지 위한 역할 강조, 美 2월 소비심리 개선

- 이란,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거부. 미국은 對이란 추가 제재
- 젠슨 황, 천문학적 AI 인프라 지출에 대한 우려 일축
- EU, 에너지·금융·무역을 겨냥한 신규 對러시아 제재안 공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빅테크 주가 반등 등 위험선호 심리 회복 등이 영향

주가 상승[+2.0%],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 랠리로 반등. 다우지수는 첫 5만 돌파
유로 Stoxx600지수도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가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 등으로 소폭 하락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 가치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연기 속 상승
독일 금리는 보합세

※ 뉴욕 1M NDF 증가 1463.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5.1원, 0.3% 하락).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2/6일	2/5일	전일대비			2/6일	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32.3	6,798.4	+1.97%	국채금리 10y	미국	4.21%	4.18%	+3bp
	유럽	617.12	611.65	+0.89%		독일	2.84%	2.84%	-0bp
	중국	4,065.6	4,075.9	-0.25%		영국	4.51%	4.56%	-4bp
	일본	54,254	53,818	+0.81%	CDS 5y	한국	22bp	21bp	+1bp
	한국	5,089.1	5,163.6	-1.44%		중국	43bp	43bp	-0bp
	달러지수	97.68	97.97	-0.15%	위험지표	EMBI+	268	268	0bp
유로화	1.1815	1.1777	+0.32%	VIX		17.76	21.77	-18.42%	
환율	엔화	157.22	157.04	-0.11%		WTI유	63.55	63.21	+0.41%
	위안화	6.9358	6.9384	+0.04%	원자재	구리	588.2	582.1	+1.05%
	원화	1,469.5	1,469.0	-0.03%		금	4,964.4	4,779.1	+3.8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준 신뢰 유지를 위한 역할 강조. 美 2월 소비심리 개선

- 보스틱 총재는 과거에도 연준은 외부의 압력과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과 이중책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인식에 고착되면 경제 전반의 작동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물가를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 조치가 경기부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낙관론을 견지

- 한편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나 관세 인상이 가격에 보다 충분히 전가되면 금년 중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 강한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

그리고 현재의 통화정책은 이중책무 측면에서 위험에 대응하기에 적절하다면서 추가적인 정책금리 조정의 범위와 시기는 데이터, 전망, 위험의 균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

- 미시간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57.3으로 1월(56.4)과 예상치(55.0)를 모두 상회. 다만 전년동월(65.7)에 비해서는 7.4p 낮은 수치로 고물가에 대한 개인 재정 취약, 실직 위험 고조 등이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이란,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거부. 미국은 對이란 추가 제재

- 미국과 이란은 6일 오만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 다만 미국은 이란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했다고 전언. 이날 회담에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이란 외교장관은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
- 미국은 즉각적인 공개 발언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불법 석유거래에 연루된 선박 14척 등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

■ 젠슨 황, 천문학적 AI 인프라 지출에 대한 우려 일축

-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의 대규모 AI 투자에 대해 적절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다크 GPU(깎아놓고 사용하지 않은)'가 많았던 '00년대 닷컴 버블과 달리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실제 업무에 100% 활용되고 있다며 닷컴 버블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 EU, 에너지·금융·무역을 겨냥한 신규 對러시아 제재안 공개

-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역할을 해온 원유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은행 20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20차 對러 제재안을 발표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고 설명. 한편 제재안의 효력은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

■ 이란 반정부 시위 재점화 가능성

- WSJ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테헤란의 상업 중심지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은 전국의 상인들에게 17~18일 다시 거리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란 내부적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저항의 물결을 거스르기는 이미 늦은 것으로 평가
- 한편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의 체포, 시위를 지지한 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및 일부 자산 압수 등 보복을 본격화

■ 미국, 러시아와 중국에 새로운 핵 군축 협상 제안

- 루비오 국무장관은 군축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만의 양자 이슈가 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동급의 핵보유국을 상대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미래에도 지속 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화된 조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

■ BOE 수석 이코노미스트, 단기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안도감은 위험

-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성을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경계.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E-mail jsch@kcif.or.kr